

을병연행록과 무오연행록의 노정별 내용 비교

張 庚 男*

목 차

- I. 머리말
- II. 홍대용과 을병연행록
- III. 서유문과 무오연행록
- IV. 노정별 내용 비교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의 중국 使行은 기본적으로 正使, 副使, 書狀官의 三使가 공식 사행원이 되며, 그 외 수행자가 30여 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이 될 때도 있었다 한다. 明·淸시대를 거치면서 1년에 1회 이상 사행이 이루어졌고, 이 때마다 공식적인 문서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행기록들이 매우 많이 쓰여졌다. 공식적 성격의 기록은 사행의 실무를 맡은 서장관이 작성하는 臚錄이다. 등록과 더불어 공식적인 보고를 위한 사행기록으로는 逐日記事, 狀啓, 聞見別單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인 보고와는 별도로 개인적 文筆로서의 使行文學이 창작되었다.

기존의 사행문학은 크게 使行漢詩, 使行歌辭, 使行散文의 세 가지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사행한시와 사행산문이 중심적인 갈래이지만 사행가사도

*승실대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국문 시가문학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사행문학의 한 갈래가 되었다. 사행산문은 대개 명나라 때에는 ‘朝天錄’이라 이름하였고, 청나라 때에는 ‘燕行錄’이라 하였다.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조천록과 연행록 유형의 사행산문은 각각 40여 종, 60여 종에 달한다고 한다.¹⁾

이 중 연행록은 淸朝가 수립된 이후인 仁祖 대에서 高宗 대까지 근 300년 동안 집중적으로 축적되었다. 이들 연행록은 중국의 여러 문물제도를 직접 체험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담고, 거기에 당대 현실의 분위기와 작자의 개성이 합쳐져 각각 다양한 의식의 개진을 보여준다.

연행록의 작자는 三使와 從事官으로 수행한 文士들이 대부분으로 표기문자도 한문이 주종을 이루지만, 국문으로 쓰여진 것도 있어 주목된다. 국문 연행록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老稼齋燕行日記』, 『을병연행록』, 『무오연행록』을 꼽을 수 있다.

老稼齋 金昌業(1658~1721)의 『老稼齋燕行日記』는 연행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언급되며, 연행록의 교과서 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행록은 김창업이 동지겸사은정사 金昌集의 子弟軍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1712년 11월 3일부터 이듬해 3월 30일까지 5개월간의 기록을 일기로 남긴 것이다. 그 뒤를 잇는 것으로 湛軒 洪大容(1731~1783)의 『湛軒燕記』와 『을병연행록』을 들 수 있다. 담헌은 그의 숙부 洪億이 謝恩使兼冬至使의 書狀官으로 연행할 때 자체군관으로 숙부를 수행했다. 『담헌연기』는 이 때 전문한 바를 주제별로 기술한 것으로 한문본인데, 『을병연행록』은 1765년 11월 2일부터 1766년 4월 27일까지의 연행을 날짜별로 기술한 것으로 국문본이다. 담헌 저작의 뒤를 잇는 것이 徐有聞(1762~?)의 『무오연행록』이다. 이 연행록은 서유문이 사은사 겸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사행하면서 체험한 바를 기록한 것으로, 1798년 8월 9일부터 1799년 3월 30일까지의 기록이다.²⁾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는 한문본과 국문본의 두 가지 텍스트가 전하는데, 국문본 『연행록』은 6권 6책 중 3책만 남아 있어 그 전모를 볼 수가 없다.³⁾ 온전하게 국문본으로 전하는 작품은 『을병연행록』과 『무오연행록』이다. 국문본

1) 소재영, 「무오연행록과 연행가」, 『조선조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369면.

2) 소재영, 앞의 책, 370쪽 참조.

3) 김아리, 「老稼齋燕行日記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6쪽 참조.

의 독자는 대체로 여성으로 상정할 수 있는 바, 기록자는 중국 여행의 체험을 집안의 여성들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연행록을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 사실의 보고가 중심이 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체험 사실에 대한 간략한 감상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러한 감상의 글을 통해서 저작자의 의식을 다소나마 추출해 볼 수 있다. 만일 사행 체험이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면 시간적 거리에 의해 견문한 바나 견문 대상에 대한 감상이 다를 수도 있으리라 본다.

홍대용의 연행록과 서유문의 연행록은 국문으로 쓰여졌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시간적 거리가 33년이라는 것과 연행 당시 기록자의 신분이 子弟軍官과 書狀官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두 연행록의 비교를 통해 견문 대상과 대 중국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8세기 후반의 조선 선비의 관심사나 대중국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두 연행록의 노정별 내용 연구를 중심으로 노정별 관심사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II. 홍대용과 을병연행록

담헌 홍대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홍대용에 대한 전기적 고찰, 『湛軒書』의 검토, 연행록에 대한 검토, 전후대 연행록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그것인 바,⁴⁾ 여기서는 담헌의 간략한 전기적 사실만 언급하기로 한다.

홍대용은 본관은 南陽, 자는 德保, 호는 弘之인데 湛軒이라는 堂號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대의 유학자 金元行으로부터 사사하였고, 16세 때에 이미 거문

4) 金泰俊, 『洪大容과 그의 時代-燕行의 比較文學』, 일지사, 1982.

김태준, 『洪大容評傳』, 민음사, 1987.

蘇在英, 「乙丙燕行錄의 한 研究」, 송실어문 1집, 송실대 국어국문학과, 1984.

진단학회, 「湛軒書의 綜合的 檢討」, 제22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 진단학보, 79호, 진단학회, 1995.6.

金智鮮,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姜東燁, 「18세기를 전후한 朝鮮朝 문학작품에 나타난 文明意識」, 淵民學志, 제2집, 연민학회, 1994.

고를 배우기 시작하여 음악에 조예를 쌓았다. 32세 때인 1762년 혼친의와 자명종을 완성했고, 사설 천문대를 부친에게서 얻은 비용으로 완성하였다. 35세 때인 1765년에季父인 洪櫛의 연경 사행에 자제군관으로 수행하여 6개월 중국 여행을 하였다. 60여일 동안 북경에 머물면서 嚴誠, 潘庭筠, 陸飛 세 선비를 만나 의형제로서의 사귀기를 맺고, 귀국 후 북경에서의 필담과 왕복 편지를 정리하여 ‘乾淨衡筆談’을 엮었다. 37세에 부친상을 당하였으며, 『海東詩選』을 편찬하였다. 여러 번 과거에 실패한 뒤 1774년(영조 50) 44세에야 음보로 翊衛司侍直에 선임되어 幼時의 정조대왕을 가르쳤다. 45세에 郎官으로 승선되어, 繕工監監役이 되었다. 46세에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司憲府監察로 승직되었다. 그 뒤 태인현감, 영천군수를 지냈다. 48세에는 三河의 孫有義에게 편지하여 여행하는 李德懋, 朴齊家를 소개하였고, 50세에도 손유의에게 편지하여 여행사절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는 친구 燕巖 朴趾源을 소개하였다. 1783년 53세를 일기로 중풍을 일으켜 갑작스레 실어증으로 세상을 떠났다.⁵⁾

위의 전기적 사실을 보면, 담헌은 35세 때 계부 흥역을 따라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약 6개월 동안 북경을 다녀왔다. 담헌은 이 사행에서 얻은 체험을 두 종류의 글로 남겼다. 하나는 그의 문집인 『湛軒書』 외집 권 7·8·9·10에 수록된 ‘燕記’이며, 다른 하나는 ‘을병연행록’이란 계명으로 송실대학교 박물관과 장서각에 소장된 한글 연행록이다. 이 두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는 김태준 교수에 의해 이미 정리된 바 있다.⁶⁾ 이 중 『을병연행록』은 최근에 주해서와 현대어 번역서로 출간이 되어 그 관심사를 알 만하다.⁷⁾

『을병연행록』은 두 종류가 있다. 10권 10책으로 된 송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과 20권 20책으로 된 장서각본이 그것이다. 송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은 담헌 집안의 제일 첫 번 필사본이며, 장서각본과 비교해보면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라 한다.⁸⁾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송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을 텍스트로 삼는다.

5) 소재영,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국문학논고』, 송실대출판부, 1989, 김태준, 흥대용론, 『한국문학작가론』, 현대문학, 1991, 참조.

6) 김태준, 을병연행록 해제, 『燕行錄-을병연행록』,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국학자료간행회, 1983.

7) 소재영·조규익·장경남·최인황,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김태준·박성순 옮김,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8) 김태준, 「홍대용의 乙丙燕行錄」, 최강현 엮음, 『韓國 紀行文學 作品 研究』, 국학자료원, 1996, 433면.

승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은 1권에만 ‘담헌연행록’이라 쓰여 있고, 2권부터 마지막 10권까지는 ‘을병연행록’이라 했다. 매 권마다 “초삼일 고양서 니발하야 초구일 평양에 니르다”, “삼십일 봉황성 자다” 등등의 소제목을 달아 놓아 소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을병연행록』의 자세한 내용을 살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연구 결과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책의 체제 및 내용을 소제목 중심으로 나열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들어보기로 한다.

1권은 을유년 11월 2일 경성을 출발하여, 고양, 평양, 의주, 구련성, 책문, 봉황성, 술참, 감수참, 낭자산, 신요동을 경유하여 12월 8일 심양에 도착하여 9일 심양에 묵은 기록이다.

2권은 12월 10일 심양을 출발하여 소혹산, 십삼산, 영원, 양수하, 유관, 사하역, 옥전현, 연교포를 거쳐 27일 북경에 들어간 기록이다.

3권은 12월 28일 예부에 자문 바치는 데 따라간 내용에서 시작하여, 홍로시 연의에 참여, 병술년 1월 1일 조참에 따라간 내용, 며칠 관에 머물다가 정양문 밖에 나가 희자놀음 구경한 것, 태학·부학·문승상묘·옹화궁 등을 구경하고, 6일 관에 머물러 있었던 일 등에 관한 기록이다.

4권은 7일부터의 기록으로 관에 머물면서 환술을 구경하고, 천주당, 진가의 푸자, 유리창, 옹화궁, 태학 등에 다녀오고, 13일 천주당과 유리창에 다녀온 일 등의 기록이다.

5권은 14일 법장사에 다녀온 일부터 시작해서 관에 머무른 일, 밤에 관등한 일, 오룡정·홍인사 구경한 일, 유리창·천주당 다녀온 일, 팽한림의 집에 간 일, 서길사청에서 두 한림과 수작한 일, 그리고 24일 몽고관과 동천주당에 다녀온 일 등을 기록했다.

6권은 25일 북성 밖에 간 일부터 시작해서 유리창에 가서 세 선비와 수작한 일, 용복사 구경한 일, 유리창, 천주당, 간정동 등에 다녀온 일과 2월 5일 관에 머물러 있던 일 등의 기록이다.

7권은 6일 태화전과 유리창에 다녀온 일부터 시작해서 관에 머물렀던 일과 간정동, 서산 에 다녀온 일, 그리고 12일 간정동 다녀온 일을 기록했다.

8권은 13일 관에 머물러 있었던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주로 관에 머물면서 격었던 일들을 기록하였으며, 23일 간정동 간 일을 끝에 기록했다.

9권은 24일부터의 기록으로 관에 머무르며 체험한 일에서부터 3월1일 귀국

길에 올라 북경을 출발하여 통주, 연교포, 삼하를 거쳐 3일 방균점, 반산을 구경하고 제주에서 묵은 일까지를 기록했다.

10권은 4일 송강성을 구경하고 옥전현에서 묵은 일부터 시작해서 영평부, 팔리포, 소릉하, 소혹산, 심양, 솔참, 삼차하, 책문을 거쳐 4월 12일 의주에 이르고, 27일 서울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했다.

이 내용을 한데 합쳐 보면 『을병연행록』은 작자 답헌이 을유년(1765) 2개월, 병술년(1766) 4개월 도합 6개월 동안의 견문한 바를 여정 중심으로 기록한 글임을 알 수 있으며, 연행록의 이름도 을유·병술의 간지를 모아 ‘을병연행록’이라 하였음도 알 수 있다.

연행록의 주 내용은 북경에 도착하여 2개월 여를 체류한 기간의 체험을 기술한 것으로, 분량으로 보아도 총 10권 가운데 6권이 이에 해당한다. 북경에 머문 2개월 동안의 일정은, 1월 한 달간은 주로 천주당과 유리창을 비롯한 시내 구경, 2월 한 달간은 주로 항주의 세 선비 엄성·반정균·육비와의 사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답헌이 구경한 시내 명소는 남천주당에 세 차례 갔던 것을 비롯하여, 동천주당·천문대·태학·유리창·태화전·서산·창춘원·몽고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답헌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곳은 천주당과 유리창이었으며, 이 두 곳에서 공통되는 하나의 화제를 찾는다면 아마도 선진 과학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Ⅲ. 서유문과 무오연행록

서유문은 본관은 達城, 자는 鶴叟인데, 관찰사 直修의 아들로 1762년에 태어났다. 178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藝文館檢閱에 임명되었다. 1791년에 承文院正字 李寅采로부터 역적의 후손 趙秀民을 假注書로 천거했다 하여 탄핵을 받고 仕版에서 削名되었다. 그해에 다시 洪樂遊와 함께 照訖講의 摘奸史官으로 임명되어 조흘강의 試官인 尹永僖와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 다투다가 제천에 유배되었으며 그해 12월에 풀려났다. 1794년에 別兼春秋로 있을 때 예문관검열을 추천하는 자리에서 정조에게 謬奏를 하여 다시 삭직당하였으며, 그해에 다시 홍문관교리로 임명되었으나 李應燦을 왕의 특지로 副摠管에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筭子を 올려 또 다시 창녕에 유배되었다가 두 달 만에 풀려

났다. 곧이어 兩南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가 1798년에 사은사 겸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사행하였다. 그 뒤 통례, 승지 등을 역임하다가 1800년에 순조가 즉위하자 사헌부로부터 역적 金履載의 일당으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고 위원군에 정배되었다. 1811년 대사간에 임명된 뒤 충청감사, 이조참의, 의주부윤, 평안감사 등을 역임하였고, 1822년 이조참판에 제수되었다. 물년은 미상이다.⁹⁾

서유문은 서장관의 신분으로 1798년 10월 19일부터 1799년 3월 30일까지 5개월 여에 걸쳐 북경에 다녀왔다. 이 사행에서 체험한 바를 기록한 사행기라 바로 『무오연행록』이다. 이 연행록은 한글본으로 6권 6책의 장서각본과 국립도서관본이 있는데, 같은 계통의 이본이다. 국립도서관에는 따로 한문본 1책본 『戊午燕錄』이 있다. 그런데 이 한문본은 往返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에 의하여 국문본에서 反譯된 느낌이 드는 이본이다.¹⁰⁾ 이 글에서는 장서각본을 텍스트로 삼는다.¹¹⁾

우선 책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권별 내용을 대략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권은 8월 9일 사은사 겸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낙점받은 사실과 10월 6일, 16일 사행 준비에 대한 일을 기록했고, 11월 19일 서울을 출발한 날부터는 매일의 일기로 11월 8일 의주 도착, 19일 도강하여 구련성, 책문, 봉황성, 의동, 심양, 백기보, 광령 등을 거쳐 12월 6일 쌍양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기록이다.

2권은 12월 7일 쌍양점을 떠나 산해관, 고려보, 옥전현, 제주, 연교보를 거쳐 19일 북경에 들어가 관에 머물며 황성 구경한 일과, 치형으로부터 유리창 구경을 들은 일 등을 기록했다.

3권은 12월 23일부터의 일기로 관에 머물면서 흥로시 연례를 연습하고, 기미년 1월 1일 3사신이 궐하에 나아가 예를 표하고, 3일 太上王의 喪事를 듣고 5일부터 8일까지 상사에 참여한 일을 기록했다.

4권은 9일부터 25일까지의 일기로, 매일 삼시곡반에 참여한 일을 기록했으

9) 소재영, 「무오연행록과 연행가」, 『조선조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372면 참조.

10) 김동욱, 해제, 『국역연행록선집Ⅶ』, 무오연행록, 민족문화추진회, 1986, 참조.

11) 장서각본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86년에 간행한 『국역 연행록선집Ⅶ』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며, 중간 중간에 치형이 보고 온 천주당에 관한 것과 화신의 조서, 회자놀이 구경한 것 등을 기록했다.

5권은 26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일기인데, 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 삼시곡반에 참여한 일과 궁궐 구경한 내용, 기상서와의 편지 교환, 왕낭중과의 필담 등을 기록했다.

6권은 2월 7일부터 시작해서 8일 귀국길에 올라 북경을 출발한 내용과 귀국의 여정을 기록했는데, 귀국길에 느낀 감회와 도중에 구경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였으며, 3월 20일 압록강을 건너 30일 서울에 도착한 일을 쓰고, 총 여정을 기록하면서 끝맺고 있다.

총 여정에 대해서 작자는, 무오년 10월 19일 서울에서 발행하여 11월 초8일의주에 이르고, 19일 도강하여 12월 19일 북경에 들어가고, 기미년 2월 초8일 북경에서 회정하여 3월 초8일 책문에 이르고, 20일 도강하여 30일 서울로 들어왔다고 연행록 말미에다 적고 있다. 여행 기간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서울에서 발행하여 19일 만에 의주에 이르고, 의주에서 11일간 묵고, 도강한 지 30일 만에 북경에 들어가고, 북경에 유관한 지 55일이요, 회정한 지 31만에 책문에 이르고, 책문에서 11일간 묵고, 도강한 지 11일 만에 서울에 드니, 합하여 1백 60일이라고 기록하였다.

무오연행록의 권별 내용을 통해 보았듯이 주 내용은 북경에 체류한 기간의 일기로, 총 6권 가운데 4권이 이에 해당한다. 북경 체류 기간의 일기 내용은 다채롭지 못하다. 작자는 서장관이라는 공식 사행의 일원이었으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구경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太上王의 喪中이었기 때문이다. 12월 22일의 일기에 “치형은 이진사 자송과 이검서 경인을 좇아 날마다 구경하고 돌아와 본 바를 전하니 내 일기에 누관과 산천과 승지와 풍속을 기록한 바가 치형이 전하는 것이 많은지라”고 기록했듯이, 유리창이나 천주당과 같은 곳의 견문기는 수행원이었던 치형의 견문기에서 차용하고 있다.

IV. 노정별 내용 비교

두 연행록에는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분량도 방대하여 일일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연행록 비교는 제한적이거나 노정별로 몇 부분으로 나

누어서 검토하도록 한다. 즉, 서울을 출발하여 의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의주에서 북경까지의 여정, 북경 체류 기간의 체험, 북경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귀국의 여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각 여정별 고찰은 작자의 관심사와 체험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1. 出城記(서울에서 의주까지)

연행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울에서 의주까지의 여정을 기술하였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여행에 대한 기대와 포부이다. 『을병연행록』의 서두에서 담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주(莊周)가 가로되, “여름 벌레는 죽히 더불어 얼음을 이르지 못할 것이요, 오곡(迂曲)한 선비는 죽히 더불어 큰 도를 의논하지 못하리라” 하니, 동국(東國)이 예악문물(禮樂文物)이 비록 작은 중화(小中華)로 일컬으나, 땅이 백 리를 열린 들이 없고 물이 천 리를 흐르는 강이 없으니 봉강(封疆)의 편소(褊小)함과 산천의 액색(扼塞)함이 죽히 중국(中國) 한 고을을 당하지 못할 것이어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 눈을 부릅떠 구구한 영리(榮利)를 도모하고, 팔을 뻗내어 소소한 득실을 다투어 그 자족(自足)한 기상과 악착한 언론이 다시 세상에 큰 일이 있으며, 천하에 큰 땅이 있는 줄을 모르니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오.(을병연행록 11월 2일)¹²⁾

莊子の “여름 버리지는 죽히 더불어 얼음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비좁은 조선을 벗어나 큰 땅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곧 우리의 이 좁은 땅 밖에는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좁은 곳을 편안히 여겨 계교가 없는 사람들과는 더불어 넓음을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더러운 오랑캐가 중국에 웅거하고 있지만 그들이 백여 년의 태평을 누리니 그 규모와 기상이 어찌 한 번 볼 만하지 않겠는가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헌이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12) 소재영·조규익·장경남·최인황,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이하 작품 인용은 이 책으로 하되, 인용문은 현대어로 표기하고 끝에 날짜만 표기한다.)

만일 이적(夷狄)의 땅은 군자가 밟을 바가 아니요, 호복(胡服)한 인물은
 죽히 더불어 말을 못하리라 하면, 이는 고체(固滯)한 소견이요, 인자(仁者)
 의 마음이 아니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한번 보기를 원하여 매양 근력(筋
 力)과 정도(正道)를 계량하고 역관(譯官)을 만나면 한음(漢音)과 한어(漢語)
 를 배워 기회를 만나 한번 쓰기를 생각하더니, 을유(乙酉) 유월 도정(都政)
 에서 계부(季父)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차출(差出)하시니 이는 뜻있는 자의
 일이 마침내 이롭이라.(울병연행록 11월 2일)

오랑캐라 해서 더불어 의견을 나누지 못한다면 편협하고 너그럽지 못한 소
 견이요, 어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오랑캐의 나라이지만 분명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청나라를 바라보고
 자 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답현은 평생 한 번 보기를 소원하여 중국
 어를 배워 기회를 만나면 쓰고자 했던 것이다. 간절한 소원은 현실로 다가왔다.
 다행히 계부께서 서장관으로 임명되자 자제군관으로 연행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무오연행록』은 작자가 사은사 겸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낙점 받은 일에서
 시작한다. 낙점을 받자 이역 멀리 떠나기를 당하여 근심스럽고, 또한 양친의
 연세 높으시고 자당 병환이 잦아서 私情이 절박하지마는 人臣의 직분이기 때
 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연행의 기대를 나타내었다.

하물며 연경(燕京)은 천자의 도읍이니 문물(文物)이 비록 다르나 산천
 은 의구(依舊)하고, 의관(衣冠)이 비록 변화였으나 인물은 고금이 없나니,
 어찌 한 번 몸을 일으켜 천하의 큼을 보지 않으며, 내 나이 젊었고 다행
 히 태평무사시(太平無事時)를 당하여, 한번 멀리 늙이 남야의 쾌사(快事)
 아니리오.(무오연행록 8월 9일)¹³⁾

서유문은 북경이 천자의 도읍지로 그 주인은 비록 바뀌었을지라도 인물은
 고금이 없으니, 어찌 큰 나라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기대를 나타내며, 젊
 은 나이에 큰 세상에 나가 보는 것은 남야의 통쾌한 일이라고 하였다.

13) 서유문, 무오연행록, 『국역연행록선집Ⅶ』, 민족문화추진회, 1986, 17면. 이하 작품 인용은
 이 책으로 하되, 인용문 끝에 날짜만 표기한다.

10월 19일 배표 받는 날을 당하여서는 家國을 떠날 줄을 미리 아는 일이지만 새삼스런 감정이 일어 어찌할 바 몰라 한다. 특히 가족들과 작별하고 떠나는 날에는 去留之情이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한다고 슬회하였다. 도강을 앞두고는 심란한 마음이 자못 크게 일어난다.

내일은 장차 도강(渡江)할지라, 손의 마음이 자못 수절(愁切)하더니, 이날 추위 심하여 삭풍(朔風)이 길이 부니, 꺾가의 풍수(風水) 소리와 눈앞의 호산(胡山)이 다만 회포를 도울 뿐이라. 가국(家國)을 멀리 떠난 사정(私情)이 어찌 이렇지 않으리요.(무오연행록 11월 16일)

도강을 하루 앞두고 쓸쓸한 마음에다 추위까지 심해지자, 여행자로서의 객창감만 더할 뿐이라고 하고 있다. 큰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연행에 참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다.

서유문은 큰 세상을 한 번 보고자 하는 기대, 즉 이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연행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신자의 도리로 국왕의 명을 받들어 연행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여행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출성의 여정에서 불안한 심정을 계속 드러낸 것이다.

두 연행록을 보면 중국 여행에 대한 기대는 같았음을 알 수 있다. 큰 세상으로 나가 선진 문물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개인적 기대감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선비들에게 중국은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곳을 한 번 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홍대용은 평생 한번 보기를 소원하여 중국어까지 배우며 준비를 했고, 다소 흥분된 어조로 호기있게 서울을 출발하여 의주까지 이르렀다. 반면에 서유문은 어찌 한 번 몸을 일으켜 천하의 큼을 보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연행에 대한 포부를 밝혔지만, 出城記에서 주로 드러나는 감정은 고국과 집안을 떠나 낯선 곳을 향하는 두려움이었다.

2. 渡江·入京記(의주에서 북경까지)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고 북경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답헌 일행은 11월 2일 경성을 떠나 22일 의주에 이르고, 며칠 묵은 후에 27일 압록강을 건넜다. 답헌은 도강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압록강이 이 앞에 이르러 세 가지는 하였으니, 이 삼강(三江)이라 이르
는 곳이라. 이때 삼강이 다 얼어붙었는지라 그 위에 적설이 쌓여 말을 타
고 지나매 강인줄 깨닫지 못할러라. 삼강을 지나매 좁은 길이 겨우 수레
를 통하고, 좌우에 갈숲이 길을 끼고 우거졌으니 행색이 극히 수절(愁絶)
하고 하물며 깊은 겨울에 석양이 뒤편에 내리는 때를 당하여 친정을 떠나며
고국을 버리고 멀리 만 리 연사(燕使)를 향하는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아니
리오마는, 수십년 평생지원(平生之願)이 일조(一朝)에 꿈같이 이루어져 한
낱 서생으로 용복(戎服)의 말을 달려 이 당에 이르니 상쾌한 의사와 강개
한 기운이 말 위에서 팔을 뻗음을 깨닫지 못하니(올병연행록 11월 27일)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는 삼강이 얼어 눈으로 덮힌 깊은 겨울인
데, 날 또한 저물녘으로 해 지는 저녁에 고국을 뒤로 하는 쓸쓸한 심정을 드러
내고 있다. 그러나 고국을 떠나는 수심에 찬 마음도 잠시 뿐, 쓸쓸한 마음은
수십 년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 비록 군관의 용복을
입었을 망정 상쾌하고 강개한 기분이라고 하고 있다. 말 위에서 스스로 팔을
건어붙임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여 미친 듯이 노래를 지어 읊었다.

하늘이 사람을 내매 쓸 곳이 다 있도다.
나같은 궁생(窮生)은 무슨 일을 이뤘던고
등하(燈下)에 글을 읽어 장문부(長門賦)를 못 나오고
말 위에 활을 익혀 오랑캐를 못 쏘도다.
반생을 녹록(碌碌)하여 전사(田畝)에 잠겼으니
비수(匕首)를 옆에 끼고 역수(易水)를 못건넌들
금등(金燈)이 앞에 서니 이것이 무슨 일고
간밤에 꿈을 꾸니 요야(遼野)를 날아 건너
산해관(山海關)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망해정(望海亭) 제일층에 취후(醉後)에 높이 앉아
갈석(碣石)을 발로 박차 발해(渤海)를 마신 후에
진시황 미친 뜻을 갈 짚고 웃었더니
오늘날 초초 행색이 뉘 탓이라 하리오.(을병연행록 11월 27일)

낮선 중국 땅에 들어가는 심정을 이렇게 시 한 수로 드러내고 있다. 담헌의 전기적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헌은 과거와는 인연이 없는 인물이었다. 몇 차례나 과거에 실패한 그였기에 자조적으로 “나와 같은 궁생은 무슨 일을 이루 었던가”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다 쓸 곳이 있기 마련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중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늘의 도움이라고 하며 기뻐하고 있다. 또, 중국 입국에 대한 심정을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 로 밀치”고, “갈석을 발로 박차 발해를 마신”다고 했다. 미답의 세계에 대한 두 려움은 커녕 강개한 기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도강 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해야 하는 고단한 처지였으나, 눈 앞에 펼쳐지는 낮선 땅의 모습은 담헌으로 하여금 잊지 못할 정경이었다.

이곳은 변방의 황락(荒落)한 곳이라 범백(凡百)이 일컬을 곳이 없으며
강을 건넌 후 처음 소견(所見)이라. 이 앞에 수천 리를 행하여 변화한 거동
과 웅장한 제도를 난만(爛漫)히 보았으며, 종시 이날 기이하던 줄을 잊지
못하리라.(을병연행록 11월 28일)

비록 변방의 황락한 곳이지만 강을 건넌 후 처음 보는 바라고 하면서, 이 날 의 기이한 일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다. 담헌의 감탄은 강을 건너 구련성 으로부터 봉황성에 이르기까지 그치질 않는다. 색다른 풍속에 감탄을 연발하고 있다. 보는 것 하나 하나가 다 신기하게만 보인다.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 놓 치지 않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눈에 띄는 것이 다 첫소견이라. 그 기 특하고 이상함을 다 기록하지 못할러라(11월 30일)”고 한다.

이제 국경을 갓 넘었을 뿐인 봉황성 근처에서부터 호기심에 차 돌아다니며 온갖 색다른 풍속에 감탄을 연발하고 있다. 새벽부터 혼자 돌아다니다가 일행 의 출발 시간을 늦추고, 서장관인 계부의 주의를 듣기도 했다. 식사 때와 출발 시간도 잊고 벌써부터 이렇게 정신을 팔다가 정작 북경에 가서는 어찌 다 놀

랄 것이냐는 편찬을 들은 것이다. 그의 호기심에 차 돌아 다니는 모습에는 상사 부사도 다 웃고 말았다.(12월 1일)

북경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풍속과 새로운 문물에 눈을 떴지 못하며 감탄을 연발하는 답헌이지만 북경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변화한 모습에 대비된 초라한 행색의 자신을 발견한다.

행인이 길에 메이고 그 중 준수한 인물과 화려한 의복과 사치한 안마의 변화한 거동과 호한한 기상이 이미 다른 곳과 현연(懸然)이 다르니, 스스로 행색을 생각하매 은연한 외방(外方) 궁생(窮生)과 협중(峽中) 우맹(愚氓)이 피폐한 행장으로 한강(漢江)을 건너 도성을 향하는 모양이라.(을병연행록 12월 27일)

변화한 북경에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궁벽한 시골의 선비가 피폐한 행장으로 한강을 건너 도성을 향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의복과 호한한 기상이 다른 곳과 현격히 달라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헌 스스로, 북경의 번성함은 전에 익히 들었고, “김가제일기를 보아도 거의 짐작할 듯하였는데, 진실로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 같지 못한지라 이 지경에 이를 줄을 어찌 생각하였으리오”(12월 28일)라고 한 것이다.

도강 후 북경에 이르기까지 답헌은 정신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기록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북경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그 거대함과 변화함에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탄성을 자아내던 모습은 사라지고 주눅든 시골뜨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서유문 일행은 11월 19일 압록강을 건넜다. 미답의 세계를 향한 작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강하는 장면 서술이다.

중강(中江)에 이르니 또 소서강(小西江)이라 일컫더라. 여기를 지나면 저의 땅이라. 길 옆에 갈수풀이 얽히어 겨우 수레 지나게 통하였으니 객회(客懷) 극히 슬프며, 하물며 깊은 겨울에 삭풍(朔風)이 처량하여 석양이 뒤편에 내리는 때를 당하여 머리를 돌려 동을 바라보매 눈물 아니 낼 이 없으며, 보내는 사람도 강가에서 바라보면 갈수풀 사이에 푸른 일산이 나부

끼다가 잠깐 사이에 간 곳이 없어지니, 암연(黯然)히 소혼(消魂) 아니 할
이 없다 하더라.(무오연행록 11월 19일)

앞에서 보았던 담헌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이다. 호기있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에 젖어 있는 모습이다. 환송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자 정신이 아득하여 녀을 잃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심정은 기대감에 가득하기보다는 먼저 슬픈 감정이 앞서 무거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듯하다.

책문에 이르러 봉황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목책 틈으로 역관에게 북경 소식을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산해관(山海關) 내외에 윤질(輪疾)이 대치(大熾)하여 또한 사망(死亡)이 많은지라, 길에 건정(乾淨)한 곳이 없으며, 저의 일행도 유관(留館)할 제 아니 앓은 자가 없다 하니 심히 놀랍고 염려로우나, 왕명(王命)의 미친 바라 어찌 관계함이 있으리요.(무오연행록 11월 21일)

비록 역관으로부터 들은 바를 서술한 것이기는 하나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작자의 북경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돌림병이 크게 일어나 사람이 죽어 갔다는 내용 서술이나 깨끗지 못한 길가에 대한 서술은 분명 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봉황성에 들어서자 비로소 중국인을 대하게 된다. 서유문은 처음으로 보게 되는 중국인에 대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자세히 묘사하였다. 묘사는 주로 복색과 머리 모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작자의 태도 또한 앞에서와 다르지 않다. 남자의 복색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머리 모양도 설명하고 있는데, 변발에 대해서는 “뒤로 보면 우리나라 늙은 아이 증놈 같더라”고 서술하고 있고, 여자의 복색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한 후 “다 짐짓 오랑캐인가 싶더라”고 폄하하는 서술태도를 보이고 있어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기저에는 대명의리가 자리잡고 있다. 그로 인해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12월 19일 드디어 북경에 도달한다. 북경에 들어가는 동안 작자는 문물의 변화함에 놀라 감탄을 금치 못한다.

주저리 반등을 놓아 사람을 앉혔으며, 술과 고기를 다투어 내오며 샷집 밖에 수레와 안마(鞍馬)가 많이 머물렀으며 개개이 화려하여 길 위에 서로 비치어 행인이 길에 매웠으니, 그 중 준수(俊秀)한 인물과 사려(奢麗)한 의복과 빛난 안마와 번열한 위의(威儀)와 호한(浩汗)한 기완(奇玩)이 다 지난 곳에 보지 못한 바라. 스스로 행색(行色)을 살피매, 의연한 외방(外方) 선비와 협중 백성(峽中百姓)이 피폐(疲弊)한 행장(行裝)으로 한강(漢江)을 건너 남대문(南大門)을 들고자 하는 모양이라(무오연행록 12월 19일)

북경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자세하게 하고 있다. 황성 사문 밖 50리 길을 잘 다듬은 돌로 깔았고, 가난한 곳이 없으며 변화한 건물들에 마음과 눈이 놀란다고 하였다. 그래서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시골 선비가 피폐한 행색으로 남대문을 들어가는 모양이라고 비유를 하였다. 앞 항에서 담헌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압록강을 건너면서 담헌은 강개한 기운을 드러냈고, 서유문은 암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심정은 북경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담헌은 보는 것마다 새롭고 신기하여 감탄을 연발하고 있지만, 서유문은 우리와 다른 점을 드러내면서 오랑캐의 습속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담헌의 경우는 중국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 것이다. 반면에 서유문은 임금의 명에 의해 사행길에 올랐기 때문에 이국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그래서 명나라 사적과 조선땅에 관련되는 옛자취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긴 것이다. 서유문은 북경에 이르는 여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자존심을 세우며 청나라를 낫지시 오랑캐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북경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담헌이나 서유문이나 자신들이 변방의 초라한 선비에 지나지 않는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북경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그 거대함과 변화함에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탄성을 자아내던 모습은 사라지고 주눅든 시골뜨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상상외로 거대한 위용을 드러낸 대국의 도성 앞에 위압당한 조선 선비의 초라한 모습을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북경에서의 견문기를 보면 북경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보여주는 이들의 행동은 전혀 주눅

든 모습이 아님을 다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北京 留館記(북경 체류기간)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연행록의 중심은 북경 체류 기간 동안의 견문기이다. 북경에 체류하는 동안 답헌은 마음껏 구경을 다니며 견문을 넓힌 반면, 서유문은 대상황의 상사를 당하여 관에 머무는 날이 더 많았다. 자연 연행록에 기록된 견문 내용도 차이를 보인다.

우선 답헌의 관심은 천주당을 중심으로 서양 과학 문물을 접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답헌은 천주당 구경을 으뜸으로 여기고 있었다. 천주당 방문 일정이 늦어지자 관상감 관원 이덕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곳 구경으로 천주당을 으뜸으로 이를 뿐이 아니라, 그대는 경영하는 일이 있으니 어찌 이십일 후를 기다리리오. 이곳 일이 면피(面皮;선물) 곧 없으면 되는 일이 없으니, 먼저 편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뜻을 간절히 이르고, 약간 면피를 보내어 나의 성의를 뵈고 저의 뜻 감동케 함이 어떠 하리오.(을병연행록 1월 8일)

천주당 보는 일이 으뜸인데, 자꾸 늦춰지자 선물을 보내서라도 빨리 구경을 성사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다. 드디어 장지 두 권과 부채 세 자루와 떡 석 장과 청심환 세 환으로 폐백을 삼아서 편지를 써서 보내 다음날 만날 약속을 얻어냈다.

천주당 구경은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천주당은 서양국 사람이 머무는 곳이니 서양국은 서편 바다 가운데 있는 나라요, 중국에서 수만 리 밖이라. 옛적은 중국을 통한 일이 없더니 대명(大明) 만력(萬曆) 년간에 서양국 이마두(利瑪竇)라 하는 사람이 비로소 중국에 들어오니, 이마두는 천하의 이상한 사람이라. 스스로 이르되, '이십여 세에 천하를 구경할 뜻이 있어 나라를 떠나 천하를 두루 보고, 땅 밑으로 돌아 중국에 들어왔노라.' 하였으니, 그 말은 비록 미쁘지 아니 하나,

대개 천문(天文) 성상(星象)과 산수(算數) 력법(歷法)을 모를 것이 없으며, 다 근본을 구핵(究覈)하고 증거를 밝혀 하나도 억탁(臆度)한 말이 없으니, 대개 천고의 기이한 재주요, 또 저희 학문을 중국에 전하니, 그 학문은 대강은 하늘을 존송(尊崇)하여 하늘 섬김을 불도(佛道)의 부처 섬기듯이 하고, 사람을 권하여 조석에 예배하고 착한 일을 힘써 복을 구하라 하니, 대저 중국 성인의 도와 다르고, 이적에 교회(教會)라 족히 이를 것이 없으며, 다만 천지(天地) 도수(度數)와 책력(冊曆) 근본을 날남이 의논하여 세월 절(節)을 틀리지 아니하게 함은 또한 옛 사람의 믿지 못할 곳이요, 또 그 나라 풍속이 공교하기 이상하여 온갖 기계(機械)를 별양 정묘히 만드니, 이러므로 이마두 죽은 후에 그 나라 사람이 연하여 중국을 통하여 끌치지 아니 하고, 근래는 작품(爵品)을 주어 후록(厚祿)을 먹이고 책력 만들기를 전히 맡기니, 그 사람들이 한번 나오면 돌아가는 일이 없되, 각각 집을 지어 따로 거처를 정하고 중국 사람과 혼잡지 아니 하니, 동서남북에 집이 있어 이름을 천주당(天主堂)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늘을 주(主)한다는 말이라. 그 중 서편 주당이 집과 기물이 더 이상하고, 두 사람이 있으되 하나는 유송령(劉松齡)이요, 하나는 포우관(鮑友官)이니,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고 소견이 높으니, 전부터 아국 사람이 출입하는 곳일러라. (올병연행록 1월 7일)

이 글을 보면 담헌은 중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사실이나 현재 천주당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천주당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천주당에 대한 관심은 종교적 차원이 아닌 과학적 차원의 관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선교 초기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자연과학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연행자들도 과학적 관심으로 그들에 접근하고 있었다. 담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었다.¹⁴⁾ 아무튼 1월 9일 첫 번째 천주당 방문은 성사되었고, 그 견문 기록에 대한 보고가 이 날의 일기에 자세히 서술되었다.

담헌이 북경에서 접한 서양 과학의 실상은 천문학에 대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물건들, 곧 자명종, 망원경, 펜촉, 나침반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들의 제작원리와 그 쓰임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단순한 구경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14) 金泰俊, 『洪大容과 그의 時代』, 일지사, 1982, 50면.

천주당 외에 담헌이 가고 싶어했던 또 다른 곳은 유리창이었다. 유리창에 대한 담헌의 기대는 아래와 같았다.

북경에 유명한 저자가 있으니, 이름은 유리창(琉璃廠)이라. 그곳에 파는 기물이 다 서책(書冊) 완호(玩好)와 선비 집물이라. 이러므로 저자 하는 사람이 왕왕이 글하는 선비와 남방의 거자(舉子)가 많으니, 그 서책 집물도 한번 구경함즉 하거니와, 혹 의젓한 선비를 만날까 하여 한번 가기를 도모하더니(을병연행록 1월 11일)

담헌은 유리창을 북경의 유명한 저자거리로 알고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서책 및 선비들의 집물이 많이 있으므로 서책 집물 구경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선비를 만나기를 도모했던 것이다. 과연 이곳은 뒤에 향주의 세 선비를 만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다. 처음으로 갔던 유리창에 대한 인상은 1월 11일의 일기에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천 개에 가까운 푸자 가운데 제일 먼저 書冊 푸자를 찾아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무수히 많이 진열되어 있는 책을 보다가 뒤통수가 아프고 정신이 어질하여 책 이름을 이루 살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 器玩 푸자에 들어가서는 기괴한 집물들이 좌우에 현란하여 이루 그 이름을 묻지 못하고 눈이 어지러워 다 구경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유리창에서의 첫날은 온갖 집물들을 보는데 정신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담헌이 유리창을 찾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곳의 선비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사실 이 연행록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향주의 선비들과의 교우록이다. 『을병연행록』권 6 ‘초삼일 간정동 가다’에서 비롯하여 권 9 ‘이십구일 관의 머무다’까지 26일 간 건정동 이야기가 전체 기록의 삼분의 일을 넘는 핵심적 기록이다.¹⁵⁾ 세 선비와 건정동에서 만나 근 1개월 간을 두고 전후 일곱 차례의 필담은 물론, 만나지 못한 날에 편지로 교환한 열편 논쟁사는 18세기의 실학을 꽃피운 소중한 뿌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經義, 性理, 詩文, 書畫, 歷史, 風俗, 科學 등에 관한 대화인데, 대화의 내면을 분석해 보면 담헌은 義理之學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¹⁶⁾

15) 소재영,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앞의 책, 324면.

16) 소재영, 앞의 책, 345면.

서양 선교사들과의 문답이나 청나라의 세 선비들과의 사이에서 주고 받은 화제는 다양한 것이었다. 그것은 거의 백과사전적인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이 두 곳에 공통되는 하나의 화제를 찾는다면 아마도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천주당의 서양 선교사들과 만나서는 특히 천문학과 자명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기대했고, 이 방면에 대한 자신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리고 청나라 선비들과의 교류에서도 자신의 사설 천문대 농수각의 연혁과 제도를 설명하여 ‘籠水閣記’를 받는 등 관심을 늦추지 않았다.¹⁷⁾

아무튼 답헌의 방대한 북경 유관기는 주로 천주당과 유리창, 그리고 항주 선비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엮여졌다. 이 가운데 천주당과 유리창 관람 기록을 통해서 구경을 목적으로 여행했던 답헌이 특히 지적 모험심과 과학적 탐구심에 넘쳐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반면, 서유문은 북경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많은 곳을 구경다니지는 않았다. 북경에서 구경할 만한 곳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이 치형이 견문한 것을 들어서 쓴 것이다. 그 결과 다른 많은 여행자들이 즐겨 찾았던 유리창과 천주당에 관한 기록도 치형의 견문을 인용하는 데서 그친다.

사신은 체모를 돌아보는지라, 자적(自適)으로 한만(汗漫)히 구경을 아니 하고, 공고(公故) 외는 관문을 나지 아니하더라. 강 위에 홀로 앉아 심히 적막한 때를 많이 지내니 자못 3일 안 신부(新婦) 의사가 있으며, 도한 초(楚)나라에 갇힌 사람의 모양이라. 혹 두세 곳 구경하는 곳이 있으나 마침 일 있는 때를 당하여 한 번도 시원히 지내지 못하는 고로 관에서 대궐 들어가는 외에는 눈에 보이는 바가 없는지라. 치형(致馨)은 이진사(李進士) 자송과 이검서(李檢書) 경인을 좇아 날마다 구경하고 들어와 본 바를 전하니, 내 일기에 樓觀과 산천(山川)과 승지(勝地)와 풍속(風俗)을 기록한 바가 치형의 전하는 것이 많은지라.(무오연행록 12월 22일)

체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마음내키는 대로 한가하게 구경하고 돌아다닐 수 없어 갇혀 있는 신세라고 하였다. 이 글로 미루어 보면 적극적으로 여러 곳을 보려는 의지도 약했던 것 같다. 거기에다가 태상황의 喪事를 당하여 1월 5일부

17) 金泰俊, 『洪大容과 그의 時代』, 일지사, 1982, 32면 참조.

터 28일까지 喪事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므로 북경에서의 구경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북경 체류기간 동안의 일기는 때마침 태상황의 상사를 당하여 상사에 관한 일이 주 내용이다. 연행사 일행은 1월 3일 친자의 아버지인 태상황의 상사 소식을 듣는다. 태상황의 상사를 당하여서도 일반 백성들이 별 동요 없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서유문은 대단히 의아해 한다. 사람들은 태상황의 상사를 당하였음에도 전혀 놀라거나 서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 세 노인의 예사라 무슨 괴이하리오” 하면서 태연해 하는 것에 놀란 것이다. 이보다 더한 경우도 겪는다.

태상황 상사 났단 말이 관에 이른 후 여러 통관이 술 붓고 기쁜 빛이 얼굴에 나타나 서로 이르되, “재수가 크게 통하였다.” 하니, 대개 아국에 부음(訃音)을 반포하러 오면 은자(銀子)를 많이 얻어 오리라 하는 말이니, 극히 통악(痛惡)하더라. 27일을 지내야 저자를 연다 하되, 성내(城內)·성외에 저자 다 의구히 견지 아니하고, 또 만인(滿人)과 한인(漢人)의 벼슬 없는 자는 푸른 옷과 검은 옷을 평시(平時)와 같이 입고, 스스로 이르되, ‘관계함이 없다.’하고, ‘다만 마래기 위에 붉은 영락을 떼일 따름이요, 백일 전에 머리털을 깎지 못한다.’하더라.(무오연행록 1월 4일)

태상황의 상사를 당하여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재수가 크게 통하였다고 하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일반 백성들도 상복을 입지 않고 평시와 다름없이 입고 관계함이 없다고 한다. 상사에 관계하지 않는 태도는 매일 새벽 궐하에 나아가 삼시곡반에 참여하면서도 겪는다. 6일에는 연행사 3사신이 상의하여 궐내에서 밥과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하지 않다고 하면서 주방에 분부하여 소찬을 차려 오게 한다. 그러나 청나라 사람들은 평일과 다름없이 열구자탕을 놓고 화로에 돌아앉아 어지러이 먹으니 아주 놀랐다고 적고 있다.(1월 6일) 상사를 당하고도 청나라인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한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이런 서술의 이면에는 예의를 모르는 오랑캐 나라라는 비판적 인식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조선은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예의의 나라라는 우월감은 상사에 참여하는 동안 줄곧 드러난다. 특히 회자국 사신들과의 비교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드러

난다. 회자국 사신들은 우리 사신 옆에 서서 상례에 참여하는데 삼시 곡반할 적마다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눈물을 씻어낸다. 처음에는 진정으로 슬퍼서 그런가 의심하면서 여러번 살펴보니 번번이 침을 찍어 눈가에 발라 눈물이 나는 체 하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는 “무슨 연고로 짐짓 애통하는 모양을 지어 스스로 그 성실치 아님을 나타내는고”(1월 7일)라고 하면서 회자국 사신의 예의 없는 태도를 못마땅해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회자국 사람과 만나는 것이 괴롭다고 한다. 회자국 사람과는 아주 거리를 두고는 무슨 수작할 의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반열 사이로 옷깃이 서로 닿으면 극히 괴롭다고 쓰기도 했다.(1월 16일) 조선은 예의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의식 저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기 위해 회자국 사신들의 무례함을 자신들의 행동과 대비시킨 것이다.

조선은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을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날마다 황손과 수작할 때에 첨라(溍羅) 사람과 회자(回子) 사람이 또한 옆에 섰으나 한 번 묻는 말이 없고, 홀로 아국 사신에게 날마다 삼시를 아니 와 보는 적이 없으니 그 흠선(欽羨)하는 의사를 가히 볼 것이요, 반열에 출입할 때에 비록 왕공(王公) 대인(大人)이라도 반드시 익히 보아 혹 웃음을 머금고 지점(指點)하며 혹 길을 사양하여 오래 돌아보는 자가 많으니, 아국 사신이 들어올 적마다 피인에게 견중(見重)함이 본래 이 같다 하니, 진실로 예의 능히 사람을 감동함이다.(무오연행록 1월 12일)

황손이 우리 사신에게 날마다 와서 보는 이유는 조선이 진실로 예의를 잘 지키기 때문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예의에 대한 자부심은 일기 도처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복색 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크다.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 복색을 보고는 회자 놀음의 복색이라 하며 웃는 것에 대해 무식의 소치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 복색이 옛제도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상사를 다 치루고 나서 무료하게 지내던 중 戶部郎中 王郎中과 필담을 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필담을 통해서도 조선 복색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다. 왕낭중이 자신의 나라에는 옛 의복제도가 다 없어졌다고 하며 부끄러워하자 서유문은 우리는 朱文公의 家禮를 좇는다고 자랑한

다. 의복제도가 大明 적 제도냐고 묻는 질문에 자랑스럽게 “일신에 입은 것이 대명 제도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이 中華 文化의 유일한 계승자로 자임하는 小中華 意識이 작자에게는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자는 북경에 체류하는 동안 뜻밖의 상사를 당하여 시내 구경을 활발히 다니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기간의 일기는 상사와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인데, 상사의 예를 통해서는 조선이 예의 범절을 숭상하고 잘 지키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는 상대적으로 청나라를 위시한 주변국가를 폄하하는 시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조선이 유일하게 명제도를 계승하고 있다는 소중화 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북경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규모에 위압당해 주눅든 선비의 모습을 북경 유관기에서는 보기가 힘들다. 담헌은 열심히 선진문물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곳 선비들과 교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서유문은 조선이 의복 제도나 상례에서는 오랑캐인 청나라보다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청나라의 선진문물에 대해서는 감탄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조선이 우월하다는 자존심, 이것이 당시 연행 선비들의 공통적 의식의 바탕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歸還記(북경에서 서울까지)

귀환기는 북경 체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서울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을병연행록』을 보면, 담헌은 북경을 떠나던 날 그동안 안면을 익혀 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전송하는 사람이 없자 섭섭해 한다.

세팔이 인마를 거느려 대령하였거늘 즉시 떠나니 이곳 상고들과 두어 선반이 안면이 익은 사람이 많되 하나도 나와서 길을 보내는 이 없으니 저희 매매에 골몰할 뿐이 아니라 전혀 이를 탐하고 인정을 돌아보지 못함 이러라.(을병연행록 3월 1일)

이처럼 이별을 맞아서도 인정을 베풀지 않는 이유를 매매에 골몰하여 이익만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중국인들의 인정없는 세태를 꼬집고 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몰인정함을 낭자산 숙소에 이르러서 다시 한 번 겪는다. 낭자산 숙소는 북경 들어오는 길에도 머물렀던 곳인데 들어올 때의 대접과 나갈 때의 대접이 완전히 다르자 이번에는 역관들이 “들어갈 때에는 반겨 대접하는 거동이 친척과 다름이 없으되 돌아올 때는 조금도 은근한 뜻이 없으니 짐짓 오랑캐 풍속이라.”(3월 25일)고 하였다. 이해득실에 밝은 중국인들을 비꼬며 오랑캐 풍속이라고 까지 한 것이다.

호기심을 갖고 이곳 저곳을 구경하던 답헌도 수개월 여를 이국 땅에서 보내고 나서는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는 객창감을 느낀다. 길가를 지나다 본 높은 산과 흐르는 물이 마치 고국의 산천과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고향에 돌아온 듯하다고 한다. 더구나 행화와 두견화가 가득이 피어 서로 비추니 여러 가지를 꺾어 수레 앞에 꽂아 놓고는 이역의 객회를 위로하기도 하였다.(3월 25일)

고국에 점점 가까워 오자 고향 생각에 걱정 근심이 날로 심하다.

이즈음 이르러는 연로에 구경할 곳이 거의 다하고 고국이 점점 가까워니 집을 생각하여 염려와 근심이 날로 심하여 비로소 객회에 피로움을 끼칠러니, 청석령(靑石嶺)에 이르러 령(嶺) 길이 험하고 수레 오르기 가장 간신히 수레 문을 의지하여 희미히 졸더니, 한 하인이 앞을 지나가되 혼자 아국 편지봉을 가져 가거늘 놀라 일어나 그 연고를 물으니 의주 아전이 여러 편지봉을 가지고 책문을 들어 령 위에 마중왔는 고로 사행이 령 위에 묘당에 머물러 편지를 보신다 하거늘 이때 령을 겨우 반을 올랐는지라. 창황이 수레에 내려 걸어 올라가되 반가운 가운데 무슨 기별이 있을 줄 몰라 놀라운 마음이 도리어 가슴에 가득하니 험준한 령 길에 가뿐 줄을 끼치지 못하고, 묘당 앞에 이르니 길가에 먼저 온 역관들이 이미 가신(家信)을 들었는지라. 안부를 들은 자는 희색이 가득하고 우환 소식과 흑복제를 만난 자는 경색이 수참하니 그 거동을 보매 더욱 미음이 놀라와 급히 묘당으로 들어가니, 계부가 웃음을 머금고 편지를 주시거늘 비로소 마음을 진정하니 편지를 본 후에 가향 안신을 들으니 옛 사람이 이른 바 ‘한 봉 가신이 만 금을 당하리라.’ 이름이 진실로 마땅한 말이라.(울병연행록 3월 26일)

이제는 새롭게 구경할 것도 없고 고국에도 가까워 오자 집 생각만 날 뿐이다. 특히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아 보고는 기쁨에 젖는 모습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음을 엿볼 수 있다. 오로지 하루 빨리 고향에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뿐인 담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책문에서 여러 날을 허비하고 압록강가에 이르러 통군정을 보자 반가운 마음이 비할 곳이 없다고 하였다.

해 높은 후에 길을 떠나 금석산(金石山) 중화하고 구련성(九連城) 숙소에 이르니 날이 오히려 이른지라. 인하여 바로 의주로 향하니 남으로 고개를 넘으매 압록강이 세 가지로 나누어 앞으로 두르고 의주 성 안에 외로운 누각이 강을 임하니 이는 통군정(統軍亭)이라. 이역에서 해를 지내고 고국 산천을 다시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비할 곳이 없더라.(을병연행록 4월 12일)

이역 땅에서 해를 넘기고 다시 고국 산천을 바라보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고국을 떠날 때는 새로운 세계를 보리라는 기대에 가득했고, 북경에 들어가는 많은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그곳 선비들과도 사귀는 등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낸 담헌이었다. 따라서 돌아오는 발걸음 또한 가볍고 즐거웠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역 땅에서 느끼는 여행자로서의 객창감은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오연행록』의 작자 서유문은 북경에서 50여 일을 지내고 기미년 2월 8일 귀국길에 오른다. 귀국길에 오른 작자의 심정은 아래와 같은 서술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승문문(崇文門) 앞을 북향(北向)하여 행하다가 동으로 꺾어, 들어오던 길로 좃아 조양문(朝陽門) 응성(甕城)을 지나 해자(壕子) 다리를 넘으매, 일산(日傘)을 뺐치고 군뢰(軍牢)가 나팔을 불어 길을 인도하니, 50일을 갠 헌 모양같이 지내다가 시원한 마음에 길이 요원(遼遠)함을 잊을 듯하며, 말이 머리를 들고 굽을 헤우며 길게 울어 날고자 하니, 심하도다 물성(物性)이 고토(故土)를 생각함이로라.(무오연행록 2월 8일)

귀국길에 오른 사신행렬의 모양을 묘사하면서, 귀국의 기쁨을 이렇게 서술하였다. 경쾌한 나팔소리에 맞추어 행진하는 사신행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다. 북경에서 간혀 있는 모양으로 지내다가 그 곳을 벗어나니 북경을 나서는 마음이 상쾌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쾌하고 가벼운 심정은 표현 방법에서도 드러나는데, 지금까지의 일기에서는 그날 그날에 겪었던 일들을 설명과 서사의 방법으로 서술하였지만은 귀환기에는 간혹 시를 섞어 작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내가 들어올 적은 도강(渡江) 이후로 조금도 흥황(興況)이 없는지라, 한 곳 구경이 없으며, 한 귀 글을 이르러 아녔더니, 무사히 유관(留館)하고 돌아가기를 당하여 이미 수삼일 성도를 지나니 의사가 자못 상연(爽然)하여 이같이 글을 기록하여 치형을 보이니,(무오연행록 2월 10일)

서유문은 도강을 한 이후부터 북경에 머무는 동안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으며, 북경 체류기간에는 태상황의 상사까지 당하여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관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감옥에 간혀 있는 모양과 같다고 한 것이며, 이를 벗어나자 이제 다소 여유를 되찾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되찾자 작자 일행은 들어올 때 보지 못한 곳을 두루두루 구경한다. 향화암, 독락사, 이제묘, 문묘, 망해정, 강너묘, 조대락·조대수 패루 등을 관람하고, 그 감상을 서술하고 있는데, 주로 명나라와 관련된 사건의 회상과 서술이다. 이는 아직 대명 의리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자의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책문을 지나면서는 새장에 갇힌 새가 놓여 나는 바와 같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연행사의 임무를 완수하였기 때문에 흥가분하다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랑캐 땅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아닐까 싶다. 이 안도감은 압록강을 건너 고국 땅을 밟는 순간에도 드러난다. 3월 20일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으로 들어왔다. 작자는 이역에서 해를 지내고 고국 산천을 다시 만나는 반가운 마음이 비할 데가 없다고 하면서, 북경의 장려한 누각이 도리어 잊힌다고 소감을 슬회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고국에 생환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바야흐로 예하(潑河)를 건널새, 반년 지낸 바를 생각하매, 일행이 단원 하여 고국에 생환(生還)함이 진실로 왕령(王靈)의 미친 바라, 내가 이 말로 결의 사람을 돌아보아 이르니 다 가로되, 그렇다 하여, 혹 기쁨이 극하여 눈물을 머금은 자가 있더라.(무오연행록 3월 20일)

작자는 고국에 생환하였다. 생환은 왕령이 미친 바라고 하였다. 오랑캐 땅을 벗어나 고국에 돌아왔기에 생환하였다고 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歸還記에서는 작자들의 객창감이 잘 드러나 있으며, 고국에 가까이 올수록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한결같음을 볼 수 있다. 반년 동안의 긴 사행을 무사히 마치고 고국의 땅을 밟는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연행록 작자들은 연행록 말미에다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8세기 후반에 쓰여진 한글 연행록 가운데 홍대용의 『을병연행록』과 서유문의 『무오연행록』을 대상으로 노정별 내용 비교를 하였다. 홍대용은 35세 때 그의 숙부 홍억이 사은사 겸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할 때 자제군관으로 숙부를 수행했다. 『을병연행록』은 1765년 11월 2일부터 1766년 4월 27일까지의 연행을 날짜별로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서유문은 37세 때 사은사 겸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사행하였다. 『무오연행록』은 이 때 체험한 바를 기록한 것으로, 1798년 8월 9일부터 1799년 3월 30일까지의 기록이다.

내용 비교는 노정별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즉 서울을 출발하여 의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出城記로, 의주에서 북경까지의 여정은 渡江·入京記로, 북경 체류 기간의 체험은 北京 留館記로, 북경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귀국의 여정은 歸還記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出城記를 보면 중국 여행에 대한 기대는 두 작품이 똑같다. 큰 세상으로 나가 선진 문물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개인적 기대감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

러났다.

渡江·入京記에서는 압록강을 건널 때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홍대용은 강개한 기운을 드러냈고, 서유문은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심정은 북경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북경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규모에 위압당해 주눅든 선비의 모습을 北京留館記에서는 보기가 힘들다. 홍대용은 열심히 선진문물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곳 선비들과 교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서유문은 조선이 의복 제도나 상례에서는 오랑캐인 청나라보다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청나라의 선진문물에 대해서는 감탄 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조선이 우월하다는 자존심, 이것이 당시 연행 선비들의 공통적 의식의 바탕이었음을 알 수 있다.

歸還記에서는 두 작품에서 공히 작자들의 객창감이 잘 드러나 있으며, 고국에 가까이 올수록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한결같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노정별로 두 연행록의 내용을 비교 고찰하였다. 두 연행록의 내용을 살펴 본 바, 서유문의 『무오연행록』에는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듯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史蹟 관람기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이는 바, 서유문이 홍대용의 연행록을 수용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주로 어떤 부분을 수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연행록을 통해서 본 大中國觀의 비교이다. 18세기 후반기 조선 지식인의 눈에 비친 청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지면을 달리해 발표하기로 하겠다.

참 고 문 헌

- 『을병연행록』, 10권 10책,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 『무오연행록』, 6권 6책, 규장각 소장본.
- 姜東燁, 「18세기를 전후한 朝鮮朝 문학작품에 나타난 文明意識」, 연민학지 제2집, 1994.
- 김동욱 교주, 무오연행록, 『국역연행록선집Ⅶ』, 민족문화추진회, 1986.
- _____, 「무오연행록에 대한 소고」, 『旅行과 體驗의 文學(중국편)』, 민문고, 1985.
- 김아리, 「老稼齋燕行日記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 김태준, 『洪大容과 그의 時代』, 일지사, 1982.
- _____, 『洪大容 評傳』, 민음사, 1987.
- 박성순 옮김, 『산해관 잠긴 문을 한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 朴智鮮,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1995.
- 소재영·김태준 편, 『旅行과 體驗의 文學(중국편)』, 민문고, 1985.
- _____, 「乙丙燕行錄의 한 研究」, 崇實語文 1집,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1984.
- _____, 「戊午燕行錄과 燕行歌의 비교 고찰」, 『조선조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 조규익·장경남·최인황,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 林基中, 「燕行錄의 對淸意識과 對朝鮮意識」, 연민학지 제1집, 연민학회, 1993.

Abstract

A Study on Comparison *Eulbyung-Yonghangnok* to *Muo-Yonhangnok*

Jang, Kyung-Nam

Yonghangnok(연행록, 燕行錄) is documental letters of diplomatic corps. This paper compare Muo to Eul, according to the journey. Eul is wrote by Hong, Dae-Yong and Muo is wrote by Seo, You-Mun, in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as Hangul(Korean alphabet).

Hong follow to his uncle(Hong, Eok)'s diplomatic corps when his age was 35. EUL is a dairy, from Nomember 2, 1765 to April 27, 1766. And Seo execute to Dongjisa & Saensa(冬至使 兼 謝恩使) as a Seojangkwan(書狀官) when his age was 37. Muo is a record of his experience, from August 9, 1798 to March 30, 1799.

The Comparison is four part according to road course. Chulsunggi(出城記, statement of departure from Seoul) is a documentary where from Seoul to Eiju, and Dogang-Ibkyunggi(渡江·入京記 statement of crossing river & going in Beijing) is from Eiju to Beijing(北京). And Bukkyung-Yukwanki(北京 留館記, statement of tour in Beijing) is a record of experience of staying period in Beijing. Kuhwanki(歸還記, statement of return to Seoul) is a record of period when return to home.

On Chulsunggi, Hong and Seo hope for their travel. It is same that they expect to the advanced civilization of China, the great country.

But, their emotions are some different in Dogang-Ibkyunggi. It is expressed when the time of crossing Aprok-river. Hong has been crossed

with a varile spirit, but Seo crossed with a heavy heart. And their mind was continued to arrived at Beijing.

It is not seems that they feel timid for Beijing's great scale, on Bukkyung-Yukwanki. Hong learned the advanced civilizations enthusiastically and associated with scholar of there. And Seo has a pride that Josun's courtesy is better than Chung(national name of China)'s. They has a pride of mental capacity of their country, even if Chung have been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It is common sense of scholars as diplomatic corps.

On Kuhwanki, they seems to homesick, according to more approach to home. And they expressed the sentimental musings as a man who away from home. It is common sense to both.

This paper is one of two what is according to travel course. It is revealed that some statement of Muo was copied of the EL's statement. Specially, the records of inspection historical spots are almost same. It was maybe that Seo has been repected the Hong's work. I will investigate that's part and the view of China in their works. It is scholar's mind about Chung(China) in 18th century. It is next paper.